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고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강대한 주체조선의 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질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맞으며 2월 7일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존경하는 자체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영접하시였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떨치며 강군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시어 조국의 영원한 안전과 미래를 확신하는 군지휘관들의 끝없는 걱정이 세차게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장은 창군초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전투적행로에서 조국의 존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혁명의 무장으로 담보하며 백승의 무훈을 새겨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에 대한 크나큰 자부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회장에 들어서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창군의 함성이 리져올랐던 그날로부터 영광스러운 전통과 빛나는 승리, 찬연한 영예의 서사시를 수놓아온 인민군대의 자랑스런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역센 숨결을 무적의 군력과 값비싼 희생으로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어온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에게 송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인 우리 군대가

철두철미 혁명의 제1세대들이 총대에 재웠던 붉은 녀과 송고한 사명, 견결한 혁명정신과 결사항전의 투지를 변함없이 계승하여 우리 군대특유의 불가항력으로 강대한 조국과 인민의 권위와 위대함을 빛나게 수호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용진해온 한없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고 걸어갈 총성의 천만리에 대한 혁명적의지를 백배, 천배로 가다듬게 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열정에 넘친 연설에 접한 군장령들은 우리 인민군대 특유의 성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신념의 맹세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였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위한 군력강화의 길에서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는 위대한 령장과 무적강군의 핵심골간들의 혈연적유대를 전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 연회장에 송엄히 펼쳐졌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여주신 육친의 뜨거운 정과 하늘같은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온대도 김정은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과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며 국권수호와 인민사수, 거창한 창조적 전역들에서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인민적전군을 무적의 총대로 억척같이 담보함에 일심분투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월 9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단위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을 단상에 높이 모시고 성대한 열병식으로 혁명강군의 기세찬 위엄과 무진한 군사적강세를 온 세상에 과시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열병광장에서 꿈만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는 끝이 없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열병부대 장병들은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단력, 비범특출한 령도력으로 강군건설의 새로운 장

을 힘차게 열어나가시며 조선인민군을 견결한 혁명정신과 백승의 투지를 만장약한 정의의 역센 주먹으로, 그 어떤 강적도 압승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세기에 떠올려주신 회세의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함, 높은 명예와 찬란한 앞날을 더욱 명확하게 그려주는 청사에 특기할 정치군사적사변으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장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예의 군기들을 앞세우고 열병광장에 굽이친 위대한 무장력의 도도한 격류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혁명의 최전방에서 영광된 공화국의 승리를

고귀한 피와 무수한 위훈으로 수놓아온 우리 군대의 불멸의 영웅성과 전투적기개, 절대적합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강자가 되어야 존엄과 명예도 떨칠수 있고 오직 승리로써만 자기 위업의 정당성도 증명할수 있는 현 세계에서 강군이라는 반석위에 서지 못한 번영의 탑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폭제를 결단코 힘으로 제압평정해야 할 조선혁명의 특수성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오늘에 만족함이 없이 지나온 력사와 대비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해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데서 그 누구도 감담해낼수 없는 혁명의 전위로서의 중임을 맡고있는 조선인민군이

백전백승하는 영웅군대의 명예를 줄기차게 떨치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전군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참가자들이 터치는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총성의 퇴성으로 2월의 하늘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퍼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에 절대충성하며 성스러운 조국의 영원한 안전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통성발전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존엄을 위하여 충성과 애국의 군기들을 더 높이 추켜들고 자주강국의 무쇠방패, 억척의 기둥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차게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2월 9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의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조국과 혁명, 인민보위의 전초선을 지켜 분투하는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충심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뜻깊은 건군절기념행사에 불려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정을

거둬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전취물, 모든것의 첫자리에는 우리 혁명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 값비싼 헌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백전백승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만이 지닌 고귀한 명예를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무장으로 떠받들어온 혁명군대의 영광된 75년사를 백년, 천년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언제나 당과 조국,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온갖 도전을

을 용감히 맞받아 자기의 성스러운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의 강군건설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